

祝 辭

姜 東 錫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

오늘 서른 네번째 시멘트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학계와 관련업계 그리고 시멘트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시멘트업계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멘트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1973년부터 개최된 시멘트 심포지엄은 그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시멘트산업에 이바지한 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멘트 심포지엄에 오랫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학계와 업계 여러분들께 거듭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국내 시멘트산업은 계속되는 수요부진과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생산원가 증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가의 외국산 시멘트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고 무분별한 대체재 사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성로에 대해 다이옥신 규제 신설과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관리기준 마련 등 환경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단체 등에서도 불명확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언론 등에 우리의 환경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 확대된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품질향상과 환경개선 활동은 물론 폐자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시멘트산업이 더 이상 공해유발 산업이 아닌 친환경산업으로서 지구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측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고 정부에서는 산업계의 감축수단 및 감축 잠재량 파악 등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감축 의무부담이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발표와 지식과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생산성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시멘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값진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姜 元 浩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오늘 제34회 시멘트 심포지엄에 존경하는 양회협회 부회장님 및 시멘트업계 임직원 및 전문가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으로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빛내 주신 남기동 회장님을 비롯한 세라믹계 원로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멘트부회 심포지엄은 세라믹학회 부회활동 중의 선두주자로서 횡수를 거듭하는 동안 산학협동의 강화와 업계 간의 기술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발표내용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 질적으로 충실해지고 있어 시멘트 업계의 기술개발에 기여한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기간산업으로 1997년에는 시멘트 생산량이 6300만 톤을 넘어설 정도로 IMF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산업은 건설 산업의 경기 침체, 중국산 시멘트의 수입량 증가, 석탄 값의 폭등,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2006년에는 시멘트 내수에서 4,840만 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4.5% 증가한 실적을 보여 주었다 하니, 이것은 시멘트 산업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정성의 결과이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언론 보도 매체에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중의 미량성분에 의한 유해 가능성을 짚어보고 넘어가는 간다는 의미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에서 과장된 표현과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 학회장으로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에 직접 관계되는 분들은 물론이고, 세라믹계가 국민들이 시멘트 재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시멘트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 등 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고기능화, 소비자의 다양한 성능요구만족, 환경부하 저감 등을 통하여 시멘트가 환경친화성 재료이며, 고기능성재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멘트의 개발 방향은 기존 시멘트의 우수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환경친화기능의 강화, 철강보다 좋은 초고강도시멘트 등 신개념의 시멘트로서 신소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라믹학회에서도 이에 적극 대처하여 시멘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발표는 지난 1년 동안 산업체,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된 주옥같은 논문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표 내용들이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재도전 및 재도약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끝으로 시멘트 산업체의 한국세라믹학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국세라믹학회 5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50주년기념 행사에 시멘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